

## ‘총인 비리’ 수사 광주시 정조준

공무원 9명 교수 6명 등 20명 수사 확대  
“100만원서 2억까지” 돈거래 문건 주목

광주 ‘총인 저감시설’ 입찰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시공사 선정 과정에 참여한 심사위원은 물론 광주 시 관련 실과 공무원들에게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민선 5기 들어 최대 사업이 ‘비리’로 얼룩질 경우 광주시의 행정 전반에 큰 파장을 몰고올 전망이다. <관련기사 7면> 5일 광주지검과 광주시, 참여자처

21 등에 따르면 검찰은 시공사인 대립산업과 심사위원 및 관련 공무원들이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시 관련 실과 공무원들에게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민선 5기 들어 최대 사업이 ‘비리’로 얼룩질 경우 광주시의 행정 전반에 큰 파장을 몰고올 전망이다. <관련기사 7면> 5일 광주지검과 광주시, 참여자처

운 도 상무가 금품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적혀 있다. 이 문건에는 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대학교수 6명과 공무원 9명을 비롯해 시공사 선정에 ‘입김’을 불어넣을 수 있는 20여 명이 언급돼 충격을 주고 있다.

문건에 따르면 금품로비는 총인저감시설 설계시작기간 집중적으로 이뤄졌으며, 적혀 있는 금품 제공 내용 역시 설계심의위원들의 ‘평가결과표’와도 거의 일치하고 있다. 금품을 받은 심사위원들이 특정업체에 1위를 줬다는 것이다. 거래 금액은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심지어 2억원까지 다양했다. 일부 심사위원은 성공사례금을 약속받았으며, 금품 이외에 해외여행과 백화점 명품 쇼핑을 제공받았다는 내용도 문건에 등장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윤 상무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광주지법 형사1부(박강희 부장판사)가 기각함에 따라 윤 상무를 통해 뇌물의 전달과정과 수수 증거를 좀 더 보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입찰 결과를 둘러싸고 말썽이 일자 심사에 참여했던 일부 위원들을 해촉한 데 이어 자체 감사를 실시하는 등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참여자처 21 관계자는 “문건대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듯하다”며 “복취록과 문건 이외에도 증거자료가 있으며 이날 말 정도엔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시공사 선정에 비리가 개입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총인 저감시설 관련 분쟁도 예상된다. 탈락한 금호·현대·코오롱 3개 컨소시엄이 입찰 무효나 손해배상 등을 주장할 수 있으며, 현재 40%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는 공사도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입찰과정에서 비리의혹이 제기된 광주 서구 치평동 총인저감처리시설 공사현장. 현재 40%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알림

## 창사60주년 제47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 폴코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출발

최고의 전통, 최상의 코스, 최선의 진행을 자랑하는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가 오는 3월 1일 개최됩니다. 일제의 식민통치에 항거하여 대한민국의 자주성을 세계만방에 알린 선조들의 정신을 기리는 광주일보의 3·1절 마라톤은 2012년 창사 60주년과 제47회째 대회를 맞아 호남은 물론 전국 마라토너들과 그 가족이 함께하는 화합의 한마당으로 열리게 됩니다.

특히 이번 대회 폴코스는 아시아문화전당(구, 전남도청)에서 출발, 영산강변을 따라 승촌보를 반환하여 광주월드컵경기장에 끝나는 코스로 광주·전남의 상징적인 장소를 모두 경유하는 수정면 명품코스라고 대회가 치러집니다.

이번 대회는 코스를 최대한 직선화함으로써 도심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광주일보시는 이번 대회도 더욱 철저하게 준비해 참가자들의 안전과 건강, 가족과 직장, 동호인들간의 우의를 다지는 즐거운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법의 환한 기운이 약동하는 대지를 함께 달립니다.

- 일시 | 2012년 3월 1일(목) 08:30 ~ 16:00  
출발시간 - 폴코스 08:30, 하프 09:00, 10km 09:10, 5km 09:20  
종목 및 코스 | 폴코스 : 아시아문화전당 → 승촌보반환 → 광주월드컵경기장 골인  
하프, 10km, 5km : 광주월드컵경기장 → 만호초교방향 → 광주월드컵경기장 골인  
마감 | 2012년 2월 7일(화)  
문의 | 인터넷 홈페이지(http://kjmarathon.co.kr) (062)220-0541  
주최 | 광주일보사,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주관 | 광주육상경기연맹, 전남육상경기연맹

## 전남 서남권에 해양복합단지 조성

전남개발공사 180만㎡ 규모  
2016년까지 770억원 투입

### 이랜드·보이스카웃연맹 등 참여 의사

전남 서남권 해안에 해양복합휴양단지가 조성된다. 기존 관광 단지 와 달리, 산업·유통·관광 등이 한 곳에서 이뤄지도록 조성될 예정이다. ‘글로벌 넘버원 레저테마도시’ 조성을 위해 이랜드그룹이 투자 의사를 밝히면서 전남 관광 산업의 청신호가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남개발공사 김주열 사장은 전남이 갖고 있는 서남해안 일대 천혜

의 섬·갯벌 등 해양·관광 자원을 활용, 해양레저·산업·유통 등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신개념 해양복합단지를 신규 사업으로 채택,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개발공사는 180만㎡의 부지에 2016년까지 770억원을 투입해 숙박·휴양·레저·스포츠 기능에 유통 및 교육·체험형 시설 등을 도입, 복합레저휴양 메카로 조성한다는 구

상이다. 대기업에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거치면서 민간사업자들의 참여도 잇따르고 있다. 이랜드그룹의 경우 지난달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개발공사에 전달했다. 한국보이스카웃연맹도 청소년 체험시설 부문에 지분 참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는 게 개발공사측 설명이다. 개발공사는 민간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 설명회 등을 거쳐

투자 범위와 지분 참여방안 등을 확정하고 4월까지 사업 타당성 검토를 마무리한 뒤 5월 해당 지역에 대한 관광특구 지정 신청을 계기로 본격 사업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개발공사는 목포·신안·완도·영광 등을 후보지로 모색하고 있지만 개발 기대감이 따른 땅값 상승 등의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최종 후보지는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뒤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민주통합당 공천심사위원 구성 완료 15명 첫 상견례

민주통합당은 4·11 총선의 공천심사를 담당할 15명의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을 완료한 뒤 5일 강철규 공천심사위원장을 비롯한 외부 공천심사위원들과 상견례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외부 공천심사위원들은 개혁성·공정성·가치중심·국민중심 등의 공천의 원칙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3면> 강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훌륭한 지도자를 뽑고 역사발전의 시발점이 되는 시기와 장소가 됐으면 한다”며 “공천의 독립성·가치성 등에 대해 고심하

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지난 1일 강철규(67) 우석대 총장을 공천심사위원장에 임명한 데 이어 3일에는 내·외부 인사가 7명씩 포함된 공천심사위원 14명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외부 인사로는 ‘법시꽃 당신’의 작가인 도종환(58) 한국작가회의 부이사장과 김호기(52) 연세대 교수, 이남주(47) 성공회대 교수가 참여했다. 여성 외부인사에는 조순희(52) 전 ‘시네21’ 편집장, 최영애(61)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조 은(66)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문미란(53) 미

국번호사 등 4명이 포함됐다. 내부 인사로는 재선의 노영민(55)·박기춘(56)·백원우(46)·우윤근(55)·전병현(54)·조정식(49) 의원과 비례대표 초선인 최영희(62) 의원이 포함됐다. 강 위원장을 제외한 내·외부 인사를 통수로 구성한 것은 참신성·개혁성과 더불어 당내 사정을 아는 ‘정치적 감각’과 안정성도 고려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경민 대변인은 “개혁성·공정성·도덕성을 기준으로 공천위원 인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지은기자 jpkpark@kwangju.co.kr

www.jnmall.com  
주문전화: 080-610-1114

## “녹색의 땅 전라남도에서 생산된 전남쌀이 대한민국 최고의 쌀로 선정되었습니다”

깨끗한 물, 맑은 공기, 오염되지 않은 녹색의 땅에서 생산된 친환경 전남쌀!  
농식품부의 고품질 브랜드쌀 인증 ‘Love 米’ 전국 최다 획득  
여성이 뽑은 최고의 명품 대상 「5년 연속 선정」 및 환경부장관상 수상

녹색의 땅 전라남도는 전국 유기농·무농약 농산물의 61%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녹색의 땅 전남  
Green Jeonnam

해남 한/눈/에/반/한/쌀  
080-535-5636

보성 녹/차/미/인/보/성/쌀  
080-852-6665

강진 프리/미/영/호/평  
080-433-4357

영암 달/마/지/쌀/골/드  
080-470-0007

무안 황/토/랑/쌀  
080-452-6605

함평 나/비/쌀  
080-323-4060